

[한국 100대 CEO] 정범식 호남석유화학 사장

석유화학 40년 외길 ‘산증인’

호남석유화학은 지난해 수치상 ‘대박’ 을 터트렸다. 미국발 금융위기 여파로 석유화학 시장침체가 장기화될 것이라는 어두운 전망 속에서도 7176억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했다. 2008년 대비 7배나 늘어난 수치다. 같은 기간 매출도 5조9698억원으로 수직 상승했다.

과연 이런 힘은 어디서 나온 것일까. 정범식 호남석유화학 사장은 “그 답은 현지화와 고부가가치 제품 전략에서 찾을 수 있다” 고 전한다. 중국 경기회복에 따른 석유화학 수요 변화에 맞춰 현지시장 개척에 전력질주했다는 전언. 특히 고부가가치제품 생산 집중과 판매 비중 확대가 사상 최고 실적을 달성할 수 있었던 비결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대산 나프타분해(NCC) 공장의 에틸렌 연산 규모 100만톤 돌파가 돋보인다. 단일공장 국내 최초이자 아시아에서 두 번째로 이룬 쾌거다. 생산성 향상과 규모의 경제 실현을 통해 원가 측면에서 국제경쟁력을 갖췄다는 것이 전문가들 평가다.



48년생/부산고/서울대 공과대 화학공학/ 71년 한국종합화학공업/호남석유화학 상무, 전무, 부사장/현대석유화학·롯데대산유화 대표/호남석유화학 대표(현)

서울대 공대 화학공학과를 졸업한 정 사장은 지난 1971년 한국종합화학에 입사했다. 당시 국내에서는 석유화학 산업이 거의 태동기나 다름없었던 시절. 그리고 40년 가까운 세월이 흘렀고, 석유화학 산업 한 분야에만 종사해온 정 사장은 업계 최고 전문가이자 산 증인이 됐다.

정 사장은 지난 2006년 한국 RC(Responsible Care)협회장에 취임, 공해·사양산업의 대명사로 여겨졌던 석유화학 산업을 수출주도형 미래 성장산업으로 재인식시키는데 성공하기도 했다. 이를 통해 석유화학 분야가 국가기간산업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기틀을 다졌다.

정 사장이 평소 강조하는 경영철학은 ‘자원절약과 견실한 성장’ 으로 압축할 수 있다. 성장은 지속하되 에너지 사용은 최소화하자는 소박한 의미다. 그 때문인지 에너지 다소비 업종인 석유화학 업체임에도 불구하고 회사 전 공장이 에너지 절약과 관련해 대통령 표창을 받기도 했다.

Vision

아시아 최고의 화학기업

매출액 및 영업이익		(단위: 억원)		
구분	2007년	2008년	2009년	
매출액	2조2553	3조982	5조9698	
영업이익	2821	1000	7176	

그러나 올해는 주변 경영환경이 결코 만만치 않다. 전 세계 석유화학 공장 가동률이 하락하고 있고 중국 일변도의 제품 수요 기반도 불안정하다. 더구나 인도 정부가 한국산 PP(Polypropylene, 폴리프로필렌)에 대해 반덤핑 조사 결정을 내리는 등 자국 석유화학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 간 경쟁도 복병이다.

이 같은 환경에 정면도전하기 위해 정 사장은 올해의 경영 방침을 ‘새로운 도전과 변화(New Challenge&Change)’ 로 정하고 급변하는 시장환경에 탄력적 대응 체계를 갖추는 것으로 정했다.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매출 6조5000억원을 달성한다는 각오다. 이뿐 아니라 경쟁력 강화를 통해 아시아 최고의 화학기업으로 거듭 나겠다는 전략도 세워놓고 있다.